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9(월) ~ 2022.5.13(금)

제공일시 2022 05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1. IPEF 출범 임박...협정 둘러싼 기대·우려 목소리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 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족할 가능성이 증가함**
- 산업계는 IPEF 참여 시, 역내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우리 우수 제조기술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IPEF가 탄소 중립에 대해, 새로운 기회 요인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음**
- 아세안 국가들처럼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는데,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하면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국무역신문, 2022.5.13) 이도경 기자  
<https://www.wonews.com/news/view.html?section=category&item=640-0303>

## 2. 43兆 ‘글로벌 수소 동맹’ 뜬다...현대차·BP·블랙록 CEO 총출동

- 현대자동차와 SK, 한화 등이 설립한 민간 수소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글로벌 투자 기관과 손잡고 수소 펀드를 조성함**
- 이는 H2 비즈니스 서밋을 ‘글로벌 수소동맹’으로 격상시켜, 친환경 수소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정됨
-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들은 2030년까지 수소 경제에 총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가장 투자액이 큰 SK그룹은 18조5000억원, 현대차그룹은 11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업계에서는 국내 수소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함

(한국경제, 2022.5.10) 남정민 기자  
<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100303>

## 3.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저장능력 100배 이상 갖춰야

-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원욱 의원, 김주영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공공으로 마련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 토론회’가 열림**
-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이 탄소중립에 실효성 있도록 하려면, **현재 대비 저장용량이 100배 이상 확대되는 등 대규모 저장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 특히, 대규모 CO2 지중 저장이 가능하려면, 기술혁신과 함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에너지데일리, 2022.5.13) 조남준 기자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7>

## 4. 정부 탄소배출 할당량 착오...기업 ‘발동동’

- 정부가 올해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경매량을 반년 전 발표한 계획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달 들어 **300만톤(t) 줄인 것으로 확인됨**
- 부족한 탄소배출권 물량을 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을 자극한 꼴이라며 난감해하는 입장을 밝힘
- 2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당초 올해 2580만톤이던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량을 2280만톤으로 줄였는데, 6월말까지 지난해분 배출량을 정산하는 상황에서 5월 들어 갑자기 유상할당 경매량을 줄여, 계획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매일경제, 2022.5.10) 송민근 기자  
<http://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03040303?date=202205>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5.9(월) ~ 2022.5.13(금)

제공일시 2022 05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세계적 경제학자, “프래킹으로 늦어진 재생에너지 전환 몰두해야”

- 예비 노벨경제학상으로 통하는 ‘존 베이트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대런 아제모글루(Daron Acemoglu)’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수압파쇄법(프래킹)으로 미국이 역사적인 천연가스 붐을 경험하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졌지만 재생에너지 혁신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았다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간) 보도
- 2010년을 넘어가며 본격화된 셰일가스(Shale Gas) 혁명에 힘입어 미국은 2018년 일평균 1099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됨에 따라 세계 1위 산유국에 이름을 올림. 셰일가스란 모래와 진흙 등이 단단하게 굳어진 퇴적암 지층인 ‘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뜻함. 그런데 셰일가스는 암석층 사이에 미세하게 천연가스 퍼져 있기 때문에 발견 뿐만 아니라 시추 작업도 까다롭게 여겨져 옴
- 그런데 2010년대에 진입하며 셰일층에 존재하는 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500~1000기압으로 물을 분사해 지층을 파쇄하면서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프래킹이 각광받음. 3조7000억 배럴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은 이 프래킹 공법으로 다량의 천연가스를 시추하게 시작했고, 그 결과 천연가스 순수입국이었던 미국은 2009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등극하게 됨
- 특히, 높은 프래킹 기술력으로 셰일층의 탐사 및 개발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춘 미국은 천연가스 거래 가격을 하락시켜 에너지 독립은 물론 강국으로 자리잡게 됨. 미국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 단가는 2007년 1000m3(세제곱미터)당 73달러에서 2010년 31달러로 절감돼 46달러 수준의 전통가스 개발 단가를 앞지름
- 하지만 **프래킹 공법은 수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해 비판**받고 있음. 프래킹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을 비롯해 다량의 용수사용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스방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지진 야기와 같은 환경문제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 그런데 이러한 환경문제를 높임과 동시에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대런 아제모글루 교수는 2019년 연구 논문에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높았던 2005년 무렵에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도약했던 반면 프래킹 붐으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난 2010년 이후에는 ‘붕괴’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같은 아제모글루 교수 논문의 후속 연구로, 지난 4월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의 이치야르 라즈카노(Itzar Lazcano) 교수팀은 197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에너지 특허 데이터셋을 통해, 수압파쇄법 기술로 촉진된 셰일 가스 혁명이 청정에너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셰일가스 혁명이 청정에너지 혁신을 방해하는가?(Does the Shale Gas Revolution Hinder Clean Energy Innov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 이치야르 교수팀의 분석 결과, 미국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특허 비율이 화석에너지보다 1.6배 (ratio)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석연료 에너지 특허 시장 점유율이 0.15배 증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치야르 교수팀은 “미국의 셰일가스 붐(boom)이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완화하는 새롭고 개선된 기술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

(Bloomberg, 2022.5.13)  
Eric Roston and Olivia Rockema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13/new-shale-energy-tech-gas-puff-blow-at-fracking-rev-dar/2022-05-13>